

## 월요광장

## 대학졸업자 취업 시즌을 바라보며

박천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고용개발연구실장

선정한다.

이후 신체검사를 통하여 최종합격자를 선별하는데, 2013년 하반기 채용 인원은 삼성그룹 전체에서 1만1500명 수준이다. 3급 신입 공채에서 대졸 학력을 반드시 요구하지 않으나, 대학 졸업장이 없이 합격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매출 규모가 큰 현대자동차도 그룹 단위로 대졸자를 선발한다. 응시자는 4년제 정규대학을 졸업했거나 졸업 예정이고,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또한 최근 2년 이내 영어시험 성적을 보유하거나 해외 대학 졸업자로, 남자는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된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올해 하반기부터 현대인적성검사(H-MAT)를 실시한다. 전형단계는 서류전형, 인적성검사, 1차 면접, 2차 면접, 신체검사 단계로, 2013년 하반기에 채용하고자 하는 인원은 3760명内外다. 다른 기업집단이나 증권기업도 유사한 방식으로 대학 졸업자를 선발하고 있다.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지만, 기업은 채용된 인력이 만족스러운 직무능력수준에 도달하지 못한다고 판단

하는 것 같다. 대졸 신규 채용자를 대상으로 기업에서 상당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학교육에 대한 기업의 만족도도 다른 나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한편 취업에 성공한 대학생도 기업이 부여하는 직무내용이나 근무여건 등에 전반적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입사한 대학 졸업자의 75% 정도가 2년 이내에 회사를 그만두고 있기 때문이다.

매우 높은 경쟁률을 통하여 어렵게 취업에 성공했지만, 다수가 일자리를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나라 기업의 채용방식에 상당한 문제가 있음을 시사한다.

현재 기업의 채용과정을 보면 학력(學歷) 등 스펙이 좋고(서류전형), 인지능력이 우수하며(필답고사), 똑똑해 보이고 말도 잘하는(면접전형) 인재가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그런데 채용 후 수행해야 할 구체적인 직무가 채용과정에 거의 반영되지 않음에 따라, 취업자가 주어진 일에서 높은 생산성을 보이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대학이 교육과정을 통하여 학생들의 취업을 도와줄 여지도 많지 않은 듯하다. 미국은 어떤가? 포춘이 발표한 미국 1위

기업인 소매업체 월마트는 2013년 회계연도에 220만 명의 임직원이 삼성전자의 2.6 배인 4660여 달러의 매출을 올렸다. 거대기업인 월마트가 졸업 시기에 맞추어 집단적인 공개 채용으로 대학 졸업자를 몇 명이나 채용했을까? 정답은 0명이다. 집단 채용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서구의 기업들은 집단 채용을 대신하여 일의 성격에 따라 개별 채용을 실시한다. 매우 세부적인 직무 내용에 맞추어 그 일을 잘 할 수 있는 학력과 경력을 가진 인력을 채용하는 것이다.

채용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이 해당 직무수행능력이기 때문에 취업 후 추가로 요구되는 교육은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다. 또한 대학에서도 졸업생의 취업 경향에 맞추어 교육과정을 수정하고 보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채용방식을 사람(스펙)이 아니라, 일(직무)을 중심으로 보는 서구식으로 바꾸어야 할 때가 되었다. 이것이 대졸 청년층의 일자리 적응도를 높이고, 대학교육과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인 장치들이 하루 빨리 도입되고 확산되길 기대한다.

## 법조칼럼

## 법정 감상

김원지  
광주지검 공판부 검사

법행을 부인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들 나름대로 이유는 있는 것이겠지만, 그들이 기소 직전까지 검사 앞에서 하였던 이전 진술들과 법정에서의 진술을 함께 살펴보고 있으면, 한편으로는 답답한 마음이 들기도 한다.

여러 증거들을 고려할 때 명백히 거짓말을 하고 있는 피고인이나 참고인, 그리고 이에 동조하는 주장을 하는 변호인들 사이에서 이를 바로 잡아보려고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의 틈이 조금 올라가기도 한다.

현재 법원이 추구하고 있는 이른바 '공판 중심주의' 재판방식은 법원이 공개된 법정에서 조사한 증거를 바탕으로 형성된 법관의 심증을 토대로 실제진실을 밝히고 피고인의 유무죄 및 양형에 관한 판단을 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수사기관에서의 기존 진술이 어떠하였는지 미리 재판장이 알지 못하고 또 일부 증거는 법정에 제출될 수 없는 경우도 생기니, 피고인이나 참고인들이 거짓진술을 통해 자신의 죄를 모면해보려는 경우들이 종종 있게 된다. 이러니 재판이 끝나고 공판검사실로 돌아와 보면, 어느 공판검사에게는 형사 피해자가 전화하여 "법정에서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는데 왜 그냥 두느냐"며 항의하기도 한다. 공판중심주의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거짓진술을 하는 피고인이나 참고인들에게 대한 보다 엄중한 처벌이 당연히 전제되어야 한다. "거짓말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은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단순한 진리가 법정에서도 당연히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법정에서의 하위 진술은 재판장으로 하여금 법정에서 이루어진 진술들을 그대로 신뢰하지 못하고 그 신빙성을 따져 다시 엄격히 사실관계를 가려내야하는 등의 업무를 부담하게 한다. 이로 인해 법관의 오관을 이끌어 내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그릇된 결론에 이르게 할 수도 있고, 이로 인해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어 낼 수도 있다. 또 법정에서 이루어진 진술을 배척하고 그와 다른 결론이 나왔을 때 정확한 사실관계를 모르는 국민에게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하위진술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선배 검사 분들과 이야기해보면 지금의 공판은 예전과 환경이 많이 바뀌었고 이에

적절히 대처하면서 검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검사들의 부단한 노력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형사사법 제도의 완비가 함께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일치한다. 공판에서의 하위 진술에 대한 엄중한 처벌 역시 완비되어야 하는 제도 중에 하나일 것이다.

검사실에서 피고인을 바라보던 때와 법정의 검사석에서 피고인을 바라보는 지금은 그 느낌이 사뭇 다르다. 검사실에서는 쉽게 듣지 못하였던 피고인 가족의 애듯한 어려운 사정에 함께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구속되어 있던 중에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을 털어놓는 피고인의 반성에, 얼마 전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이 나서 나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하였다.

천수경에 '백겁적집죄(百劫積集罪) 일념돈탕진(一念頓蕩盡)'이라는 문구가 있다. "백겁 등한 쌓아온 죄도 한 생각으로 다 없어진다"는 뜻인데, 종교를 떠나, 광주지방법원 형사법정에선 모든 피고인들이 참회하는 반성을 통해 천수경의 이 문구처럼 그동안의 과업이 전부 함께 사라져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 기고

## 오사카 하늘에 휘날린 태극기

나도팔  
국제청소년교육재단 원장

고 돌아왔다.

눈이 띠는 점은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었다. 일본 학생들조차도 1년 전에 예약하지 않으면 들어 갈 수 없을 정도로 인기가 높은 오사카 해양센터는 보우트, 요트 등을 갖추고 선박모양의 건축물을 바닷물 위에 지어 실제 해양국가다운 체험을 만끽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고, 이를 오사카부에서 직접 운영한다는 것이다.

오사카부는 47개의 시로 이루어져 800만 명이 거주하는 상업도시이며, 우리나라 교민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곳이다. 마쓰이 이치로 오사카 지사는 한·일 청소년 60여 명을 향해 자사 접수실로 초청해 "한·일 관계는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다. 동북아에서 한·일 양국이 서로 어깨를 맞대고 협력할 수 있도록 새로운 세대로 성장해달라"고 주문했다.

양국 지도자는 마쓰이 지사가 일본 유신회 소속으로 위안부 망언을 한 하시모토 오사카 시장보다는 한 직급위의 공무원인자라 그의 발언에 촉각을 쏟고 있던 터였다. 그는 55층 청사 전망대를 특별히 개방하고 청사에 태극기를 게양하는 등 각별히 신경을 썼다. 우리 학생들이나 지도자는 일본 하늘에

태극기와 같은 사실에서 가슴 뿐만 아니라 감정을 느꼈다.

인솔자인 필자는 마쓰이 지사에게 방문 기념품을 전달하고 '한·일 국제교류캠프'(韓·日國際交流CAMP) 조끼를 직접 입혀 드렸다. 기념사진을 활용한 뒤 휘날리는 태극기를 보면서 청사를 나오는데, 2대의 대형버스는 일반 주차장이 아닌 현관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어 일본에서 준비한 문화교류시간에 일본 최대의 수족관인 해유관(海遊館)을 견학하는 동안 스스로 없이 어울려는 양국 청소년과 지도자들을 보고 지금까지 이어온 국제청소년교육재단의 오랜 교류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음을 다시금 깨달았다.

오사카 중심부에 있는 한국문화원도 찾았다. 문화관광부에서 한국의 문화를 일본에 소개하는 곳이다. 한·일 양국 청소년들이 함께 모여 장구, 사물놀이, 제기차기, 추석차례상 등의 체험을 했다. 일본학생들이 짐을 빨빨 흘리면서 광고리를 즐기고, 투호놀이를 하는 대목에서 청소년교류의 중요성을 실감했다. 박영희 문화원장은 "개관 이래 일본인으로서 가장 어린 손님이 처음 문화원을 찾았다"며

"이러한 교류가 한국을 이해하는 일본인들이 늘어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렇다! 한·일 관계는 계속 암울으로 가선 안 된다. 전후 독일의 깨끗한 사과와는 달리 위안부문제 등에 대해 일본이 왜 좀 더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결맞은 행동을 뜻하는가 하는 점이 늘 아쉬웠다. 이런 분위기에서 일본 학생들이 우리 문화를 체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일본의 청소년은 정부의 충분한 배려 속에 성장하는 듯하여 내심 부럽고, 화가 나기도 했다. 우리도 이제 청소년을 위한 미래에 투자해야 한다. 선거에서 투표권이 없는 청소년은 항상 정책의 뒷전으로 밀리기 마련이고, 무슨 사건이 터지면 각종 대책으로 헛들갑을 떨다가도 금방 사그라지는 것이 한국 청소년 육성의 현실이다. 청소년을 위해 고민하는 지도자가 진정 미래지향적이고 수준 높은 지역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내년 8월에는 일본 오사카 청소년들이 담방 형식으로 광주·전남을 찾이운다. 우리 지역 광역자치단체나 기초단체에서도 양국 청소년의 국제행사를 따뜻한 환대 속에서 치렀으면 한다.

## 결핵환자 많은 중·고생 체육교육 활성화 시급

우리나라는 자살률 1위 말고도 후진국병인 결핵환자 1위 국가이기도 하다. 그런데 그 결핵 환자 중에 중·고등 학생이 상당히 많다는 사실이 들키히다.

하지만 중·고등학생들의 생활 패턴을 보면 솔직히 이해가 간다. 학교에 가기 위해 아침밥 거르고, 다이어트 한다며 밥 굽기 일쑤고,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입시준비 한다며 체력을

거나 거의 다 사라졌다. 청장기에 있는 중·고교생들의 체력관리는 중요하다. 프랑스는 중학교에 주당 4시간, 미국은 주법에 따라 초등학교는 수업일수 10일 동안 최소 200분, 중고교는 400분의 체육교育을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아이들의 체력이 더 신경 써야 한다. 특히 학생들은 일반인과 다르게 40명 이상씩 한 교실 내에서 3년 내내 같이 생활하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사이 결핵환자가 발생할 경우 순식간에 퍼트릴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은 공부를 위해 독서실이나 학원 같은 밀폐된 곳에 자주 다니는데 이런데서도 역시 결핵을 옮기거나 얻을 수 있다.

결핵이라고 해서 다 감염되는 건 아니다. 체력만 강하면 걸리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입시에 치중 체력이 약해졌기 때문에 더 걱정되는 것이다. 그러나 학생들이 전 학년 고르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체력은 국력이라는 오래전 학창시절 들은 구호가 그립다. ▲김석원·광주시 광산구 인청동

## 社說

##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분 정부가 지원해야

광주도시철도 무임승차 비율이 전국

여 원대에 이르고 있다.

문제는 급속한 인구 고령화 등으로 무임승객이 앞으로도 계속 급증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에 따라 현행처럼 지하철의 무임 손실에 따른 비용을 지방정부에 부담시키는 구조로는 해당 공사뿐 아니라 지방 재정의 동반 파산까지 우려된다.

사회복지는 당연히 국가가 맡아야 할 사안이다. 그런데 정부는 지하철 무임 운송비용을 해당 지자체에 떠넘겨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더구나 국가철도 할인 손실분은 정부가 지원하면서 지방철도 무임 승차 적자분에 대해 나 몰라 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정부는 보편적 복지를 감안, 지방 지하철 무임운송 적자 보전을 위해 조속히 국비를 투입해야 한다. 물론 공사 측도 적자를 줄이기 위한 경영 내실화와 구조개혁에 나서야 한다. 그래야만 국비 보전을 받는 데도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지방의회 내년 의정비 동결 바람직하다

광주·전남지역 내 지방의회가 앞다퉈 내년 의정비를 동결하고 있다. 불황

에다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을 감안해 주민들과 고통을 분담하는데 의원들이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의원들의 책임 있는 결정에 박수를 보낸다.

광주시의회는 최근 의원 간담회를 열고, 지방세수 감소와 경기침체로 경영난 악화는 물론, 광주시의 재정난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최근 6년간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은 290억 원에 달하고, 매년 광주철도공사의 영업손실은 700

억 원에 이르고 있다.

이로 인해 광주도시철도공사의 경영난 악화는 물론, 광주시의 재정난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최근 6년간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은 290억 원에 달하고, 매년 광주철도공사의 영업손실은 700

## 無等鼓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4년 겨울, 독일로 진격하던 연합군 공군은

최근에는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든 T-50 고등훈련기 2대가 인도네시아에 첫 수출했다. 컨테이너에 적재해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경남 사천 공군기지를 출발해 대만→필리핀을 거쳐 인도네시아까지 1박2일간 총 7시간 가량을 직접 비행해 전달하는 방식에서 눈길을 끌었다. 연말까지 14대가 인도네시아에 인도된 회도 내년도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했다.

광주시의회는 지난해 4월 26일로

이와 함께 고등훈련기 2대가 인도네시아에 첫 수출했다. 컨테이너에 적재해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경남 사천 공군기지를 출발해 대만→필리핀을 거쳐 인도네시아까지 1박2일간 총 7시간 가량을 직접 비행해 전달하는 방식에서 눈길을 끌었다.

연말까지 14대가 인도네시아에 인도된

다고 한다. 총 4억 달러 규모로 한대당 2500만

달러(270억 원) 선이다.

T-50은 지난 1997년부터 8년3개월에 걸쳐 한국 항공 우주 산업(KAI)이 개발한 초음속(미하 1.5) 고등 훈련기이다. 미국·소련·중국 등이 이미 스텔스기를 개발·배치하려 하는 때

에 우리는 아직 같길 막다.

더욱이 공군의 차기 전투기 사업 후보(F-15SE)를 놓고도 논란이 뜨겁다.

'비행기는 아름다운 꿈'이라 여기는 개발자들의 열정을 바탕으로, 앞으로 한국형 전투기 개발 등 우리나라 항